

민 정 실	음 진 천
-------------	-------------

B U D D H A N A R 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원각경 보안 보살장” 독경 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법회장소 공사가 끝날때까지 지역 법등 법회는 쉽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오늘의 나, 어제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지금의 생각, 내일의 나 만든다.
 내 마음 나를 창조해 내고,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마차가 말 뒤 따르듯이
 어김없는 고통 따라오게 마련인 것을.

What we are today comes from our thoughts of yesterday, and our present thoughts build our life of tomorrow: our life is the creation of our mind.
If a man speaks or acts with an impure mind, suffering follows him as the wheel of the cart follows the beast that draws the cart.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4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깨달음을 통한 지혜의 완성이 불교의 목적”

삶이란 몸과 말과 정신적 행위가 더이상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혜로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진흙에서 살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은 삶을 말한다.

먼저 ‘기획토론’의 주제인 깨달음과 수행의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 본주제를 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필자는 여기에서 다루는 ‘깨달음’을 불교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불교의 근본 성격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혜의 종교’라고 정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곧 불교의 근본성격은 깨달음을 통한 지혜의 증득이며, 또한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종교체험을 통해 심신의 인격이 변화되어, 몸과 말과 정신적인 행위의 일체가 더 이상 번뇌에 사로잡힘이 없는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지혜를 강조하는 불교의 근본목적이 아닐까?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본 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더 이상 번뇌가 없는 완전한 인간의 삶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위해 중생들로 하여금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과 수행의 문제는 ‘지혜로운 삶’의 근본성격과 일치가 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깨달음은 지혜를 일으키는 종교체험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의 종교체험은 인간의 깊은 의식의 세계와 관계한 의식의 내적 전환, 인격의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내면의 의식 세계를 통찰하는 방법이 선정으로, 이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체험함으로써 지혜의 증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정과 지혜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이러한 관계는 초기불교 이래의 수행체계인 계.정.혜의 삼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삼학의 체계는 불교수행체계의 기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하다. 곧 계율을 통해 심신을 가다듬고 선정을 통해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 삼학의 체계이다. 그리고 초기불전에서 선정이 9 단계로 나타나 선정의 단계에 각기 구분이 있듯 선정과 관련된 지혜도 그 선정의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선정과 지혜의 단계 가운데 최상의 선정과 최고의 지혜를 이룬 사람이 붓다임은 말할 것도 없다.

붓다는 삶의 고통스런 현실을 직시하고 그 고통의 원인과 소멸을 위해 출가 수행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었다. 6년간의 고행을 거쳐 보리수 아래에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마침내 고통의 원인과 소멸의 길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깨달음의 체험 속에서 고통이 소멸되어졌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더 이상 고통의 세계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고통의 소멸을 확신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삶의 원리를 통찰하는 지혜로 나타난 것이 연기설로서, 붓다는 12지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통해 인간의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의 소멸을 확신하였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긴다고 하는 연기의 이치를 통하여 고통의 근본 원인으로 나타난 것이 무명으로, 이 무명은 인간의 무지로 인해 생긴 인간의 근원적인 정신적 속박이었다. 이러한 무명을 존재케 하는 인간의 무지를, 붓다는 무상.고.공.무아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붓다는 깨달음을 통해 지혜를 얻은 이후 한결같이 무명을 타파하는 길로서 무상.고.공.무아의 이치를 설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듯 붓다는 깨달음의 체험에서 연기의 지혜를 증득해 고통의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지혜롭게 된 붓다는 열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이끈 위대한 스승이었다.

붓다의 깨달음의 체험에서 우리는 수행의 목표와 깨달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곧 수행은 인간의 오래된 무지에 의해 생긴 무명을 타파하는 데 그 목표가 있으며, 깨달음은 무명의 소멸을 확신하는 지혜를 생기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은 붓다가 가르친 교설의 근본이 무상.고.공.무아의 가르침이며,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무명을 없애는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붓다의 삶에서 보여지는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은 이후의 불교 승단의 체계적인 수행의 기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붓다 입멸후 승단의 체계적인 수행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서가 설일체유부의 <구사론> 이다.

<구사론>에서의 수행체계는 기본적으로 4제에 대한 통찰을 통한 번뇌의 소멸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통찰을 현관이라 하며 그 현관은 견도와 수도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사론>에서는 먼저 수행에 들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로서 문, 사, 수의 3혜를 닦는다. 그리고 수혜인 수소성의 지혜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수행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3현위의 단계로 5정심관, 4념주를 닦는 단계이다.

5정심관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킴으로써 산란한 마음을 정지시키는 수행법으로,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 계분별관, 수식관의 다섯을 말한다. 이것은 사마타[止]의 수행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법이다. 이에 대해

4 념주는 비파사나[觀]를 닦는 단계로 부정.고.무상.무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관찰해 아는 단계이다. 이 4 념주의 단계에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과 총체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3 현위의 단계인 지.관을 닦음으로서 수행자의 마음에 성자로 되는 선근이 생기며, 이 선근을 증장시키는 단계가 4 선근의 단계이다. 선근을 증장시켜 이 선근이 최고로 증장된 단계에 이르면 수행자는 견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이 견도의 단계에서부터 수행자는 범부가 아니라 성자로 간주된다. 이 견도와 나아가 수도의 단계에 든 사람들은 성자로 불리며, 그 성자들은 각 단계에 따라 예류, 일래, 불환, 아라한의 4 단계로 나뉘어 진다.

이 <구사론> 에서 설명하는 수행의 체계는 비록 여러 부파 중의 하나인 설일체유부의 수행체계를 보이는 것이지만, 당시 설일체유부의 영향력이 컸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인도불교의 기본적인 수행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비록 대승불교의 흥기와 함께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성불의 개념과 보살의 개념이 도입되어 새로운 수행체계가 생겨나게 되더라도, 이 <구사론> 에서의 수행체계는 붓다 입멸후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체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구사론> 의 수행체계를 살펴보아도, 수행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의식세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곧 산란한 마음을 정지시키는 지의 단계와 의식된 상태로 확연히 알아야 하는 관의 단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선한 상태로 바뀌고, 이러한 선한 마음이 성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자의 길에서도 그 정도에 따라 계위가 나뉘어져 최고의 단계가 아라한의 단계로 규정되고 있다. 이와같이 아라한을 최고의 경지로 규정하는 것은 붓다의 경지는 감히 범부 중생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로, 붓다에 대해 최상의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붓다가 중생 범부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최상의 선정과 최고의 지혜를 지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사론> 의 수행체계는 본 '기획토론'의 주제인 깨달음과 수행의 문제를 고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구사론> 에서 보듯 수행의 과정은 인간 내면의 의식세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지와 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성자들의 단계가 각기 다른 것은 성자들의 깨달음의 단계가 각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도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이란 붓다가 깨달은 것과 같은 최상의 깨달음임을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최상의 깨달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붓다가 최상의 깨달음을 통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 이상 고통의 삶이 없는 무애자재한 자유인으로 대표적인 인간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보여준 붓다를 본받아 불교도들이 깨달음을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붓다가 도달한 깨달음의 경지는 일반 불교도들이 도달하기에 그다지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불교도인 우리들은 수행의 길에 들어 자신의 의식세계를 변화시키고 깨달음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지혜로서 확인하며, 무소의 뿔처럼 꾸준히 정진해야 할 것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이태승 / 위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귀천은 행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부처님이 사위성 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 무렵 많은 바라문들이 코살라의 한 장소에 모여서 ‘부처님이 사성계급이 모두 평등하고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들은 누가 가서 이 일을 따지고 항복 받을 사람이 없을까를 논의하다가 7 대동안 깨끗한 혈통을 지닌 아섭화라연다나를 대표로 뽑아 보내기로 했다. 그는 내키지는 않았으나 할 수 없이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바라문은 다른 종성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문은 희나 다른 종성은 검으며, 바라문은 청정하나 다른 종성은 더러우며, 바라문은 범천의 아들로서 그 입에서 나왔으니 곧 범천이 변화된 종성이나 다른 종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람은 누구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주인도 될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만약 마른나무를 비벼서 불을 낸다면 똑 같은 성질의 불을 낼 것이다. 비누로 때를 씻으면 누구라도 깨끗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사성계급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어서 부처님은 바라문에게 ‘만일 바라문족 여자와 찰제리족 남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그 신분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물었다. 그가 우물쭈물하자 부처님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어떤 바라문에게 자식이 넷이 있었는데 둘은 착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둘은 그렇지 않았다. 누구에게 좋은 자리와 음식을 주겠는가?”

“착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어떤 바라문에게 자식이 넷이 있었는데 두 아이는 학문을 좋아하되 정진하지 않고 악법을 행하기를 즐기며, 두 아이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지만 정진하기를 좋아하고 묘법을 행하기를 좋아했다. 누구에게 좋은 자리와 음식을 주겠는가?”

“정진과 묘법을 행하는 두 아이에게 먼저 줄 것입니다.”

“바라문이어. 그렇다. 학문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학문을 하는 것이 더 낫고, 학문을 하되 악법을 행하는 것보다 학문을 하지 않더라도 정진하고 묘법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

바라문은 부처님의 설복하러 왔다가 오히려 설복당하고 돌아갔다. -중아함 37 권 151 경 <아섭화경(阿攝化經)> -

인도사회의 고질병인 계급제도는 바라문교의 전설에 근거한 것이다. <마누법전>에 따르면 사제계급인 브라만은 범신(梵神)의 입에서 태어났고, 귀족계급인 크샤트리아는 옆구리에서 태어났으며, 평민계급인 바이샤는 허벅지로, 노예계급인 수드라는 발가락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계급제도는 인간에게 씌워진 ‘신의 굴레’다. 부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계급제도가 여전했다. 그것은 워낙 강고한 것이어서 인도 민중을 질곡에 몰아넣고 있었다. 부처님은 이러한 모순된 사회제도의 강력한 비판자였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은 종성(種姓)에 의해 귀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선언했다. 이 말씀은 천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아직도 불평등한 계급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자들이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와 지역, 종교와 인종에 대한 차별은 형태는 다르지만 세계도처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인간평등의 선언과 실천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인도에서 수백만명의 불가촉천민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주목할 현상이라 할 것이다.

법회소식 NEWS

- 9월 셋째주에 있는 전법기도 법회에서는 덕운 김진희 거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신도님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서로가 같이 배울 수 있는 법회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10월 3 제주 전법 기도 법회에서는 염상열 거사님께서 건강에 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 대한 불교 조계종과 문화공보부가 주최하는 해외에서 불교를 포교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행사에 불국사에서 덕운 김진희 거사님께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70여명의 스님들과 법사님들이 한데 모여서 일주일간 국제 포교에 관한 교류를 합니다.
- 8월 3 제주에 있었던 메라믹 강에서 카누도 타고 “정”도 나누는 불국사 특별 법회는 회장님 외 20여명의 불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저녁 대중 공양은 회장님께서 공양 해주셨고 총무님 덕에서는 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법회에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8월에 있었던 백중기도 (우란분절)에는 약 40분의 영가 위패를 모시고 일주일간 천도 기도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동참하신 영가님들은 모두 극락 왕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백중 기도 기간중 법당과 영단을 장엄했던 꽃들은 정숙자 교수님께서 시주를 해주셨고 꽃꽂이는 안소혜 불자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 8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22번 신유생 김미사, 123번 을축생 김미경, 165번 무신생 오도현, 166번 무신생 유정이, 167번 정축생 오성아, 168번 임오생 오창인, 189번 이은숙, 190번 이동엽
- 앞으로 불국사의 또하나의 상징이 될 불국사 정문앞 정원에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불사 및 지붕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지붕 불사 동참자: 김 형숙 불자님 가족, 장 법륜월 보살님 - 성불하십시오. -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